

신암 제137호 / 발행일 : 2021년 10월 3일

신암회보

“제 2의 부흥을 꿈꾸며
도약을 준비하는 교회” (살전 1:7~8)



신암가족 인터뷰
그때 그시절 라때 STORY
제2의 부흥을 위한 운동
특집 - 1. 이안센트럴D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한 교회 소개
2. 신암동산 자연장지 조성공사 안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 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뤄지이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뤄지이다



작사 : David Fellingham



CONTENTS

02 좋은 찬양 시

04 담임목사 칼럼

부흥(復興, REVIVAL)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06 특집기획

주님의 지상 명령.

제2의 부흥을 위한 운동

- 송승면 장로

10 목자의 우물가

홈(Home)을 향해 함께 달려갑시다!

- 민경찬 목사

20 신암가족 인터뷰

- 한영철 전도사

- 홍성수 안수집사

24 그때 그시절 라떼 story

- 권태호 은퇴장로

- 김삼종 안수집사

- 이호정 집사

- 신정우 성도



11



18



38

11 교회학교 소개_유치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나는 아이들

- 고은혜 전도사

12 교회학교 소식

와! 하나님이다~!

- 한연옥 권사

비밀의 문을 열어라!!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 조은숙 권사

예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 이경희 권사, 송지은 성도

교회학교의 꽃은 역시 여름수련회!

피날레는 달란트 잔치로!!

- 김정학 집사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 김국섭 안수집사

내 발의 등, 내 길에 빛!

- 박영자 권사

넘치는 은혜를 받은 마하나임

- 박예림 성도, 권영신 성도

29 특집

1.이안센트럴D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한 교회 소개

2.신암동산 자연장지 조성공사 안내

39 알쓸신잡

온라인으로 추도예배 드리기

41 선교지 소식

발리 - 허성순, 김순환 선교사

베트남 - 정에스겔, 임 울 선교사

44 책 집사

나빌레라, 당신은 크게 날아오를 사람

45 교회 소식(Photo News)

46 2021년 10월~12월

교회 행사안내

46 새가족 소개

47 새가족 간증

3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행복한 가정

- 우성덕 성도, 이신욱 성도



부흥(復興, REVIVAL)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컴퓨터회사 휴렛팩커드(HP)의 첫 여성 최고 경영자(CEO)로 발탁 돼 화제를 뿌린 칼리 피오리나(Carly Fiorina)를 아십니까? 그녀가 한번은 뉴욕타임스에 자신의 지난 20년 간 커리어우먼으로서의 삶과 최고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게 된 성공비결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피오리나는 7가지 성공 비결을 소개했습니다. 첫째, 도전적인 상황에 일부러 맞닥뜨려라. 둘째, 결코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비전을 가져라. 셋째, 스스로의 한계나 사업의 장래성을 미리 결정하지 마라. 넷째, 팀워크가 가지는 ‘위대한 힘’을 잊지 마라. 누구도 혼자서는 성공할 수

없다. 다섯째, 무슨 일이 있어도 중간에 포기하지 마라. 여섯째, 자신감과 겸손함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법을 배워라. 일곱째,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라 입니다.

저는 그녀의 성공비결에서 교회 부흥의 3가지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첫째,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코로나로 침체기를 넘어 쇠퇴기로 접어들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통계를 보면 자신의 종교는 기독교라고 하면서도 교회에는 나가지 않는 소위 ‘가나안

교인' 이 코로나 이전 100만에서 지금은 200만 명에 가까워졌다는 암울한 소식을 듣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부흥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임을 헤아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흥은 이 시대 한국교회를 향한 명령이요, 우리 대구신암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확고한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팀워크가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와 평신도, 평신도와 평신도가 함께 좋은 팀워크를 이룰 때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제2의 부흥을 꿈꾸며 당회를 중심으로 '제2부흥운동본부'를 조직하고 교역자와 당회원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 위원들을 위촉해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전4:12)

셋째, 우리가 하는 일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일도 사랑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더욱 더 신바람 나게 감당해야 합니다. 옛날 동양의 한 현자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천재보다 뛰어난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이고, 노력하는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그 일을 즐기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그 일을 사랑하고 즐기는 사람이 많을 때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여 열매가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대구신암교회는 1945년 10월 14일, 쇠머리 산언덕 위에 일본군이 방공 초소로 사용하던 2층 벽돌 건물을 인수하여 감격적인 첫 예배를 드렸으니 해방 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자랑스런 전통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1986년 7월 6일, 대현동 시대를 마감하고 신암동으로 이전해 새 성전을 건축하면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해 지금까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동대구역 역세권 개발에 발맞춰 놀랍게 변화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새로운 제2의 부흥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올 해가 그 첫 발을 내딛는 해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그동안 지역 사회를 잘 섬기는 교회로 소문나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의 전통과 역사를 잘 살려서 앞으로 세워질 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시대에 맞게 문화 선교와 지역 섬김을 통해 더 세련된 지역 섬김의 모습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면서 전도의 장을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테살로니가교회처럼 지역 사회에 모범이 되고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코로나19의 여진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하나님께서 마16:18의 말씀대로 흑암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교회를 든든히 지켜주실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제2의 부흥을 꿈꾸며 도약을 준비하는 교회'란 올해 교회의 표어를 가슴에 새기고 올 한 해 한마음 되어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히 동참함으로 제2의 부흥의 기쁨을 함께 맛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잊지 맙시다. 부흥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호와 닮은!

주님의 지상 명령.

제2의 부흥을 위한 운동



송 승 면 장로
(제3교구 신천1구역)

2020년 9월 14일 이른 아침, 대구신암교회 시무장로 12명 중 7명이 봉고차를 타고 충남 당진에 있는 동일교회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2020년, 교회 주변으로는 동대구역세권 개발로 대단지 아파트 건설이 시작되었고, 교회 내에서는 전도를 위해 실시해 온 대행진 시리즈가 마무리 되는 해여서 정책당회에 새로운 전도운동 계획이 절실한 때였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도착한 곳은 동일교회에서 미리 예약해 둔 돈가스 집이었는데 알고 보니,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새가족이 오거나 소그룹 활동 시 사용되는 장소라고 듣게 되었습니다.

운동화차림으로 혈레벌떡 달려오신 당진동일교회 이수훈 담임목사님(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고려파)교단 소속)의 첫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교회 부흥은 죽는다는 각오로 목숨 걸고 해야 합니다.”, “담임목사는 설교 잘하는 것보다 성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사람입니다.”가 첫 인사였습니다. 우린 카레돈가스를 먹고, 목사님은 메밀국수를 드시면서도 얼마나 바쁘신지 연신 핸드폰으로 오는 연락을 받으시고 무언가를 열심히 살피셨는데, 교회 자체에서 개발한 성도관리 프로그램으로 출결사항을 면밀하게 보며 일일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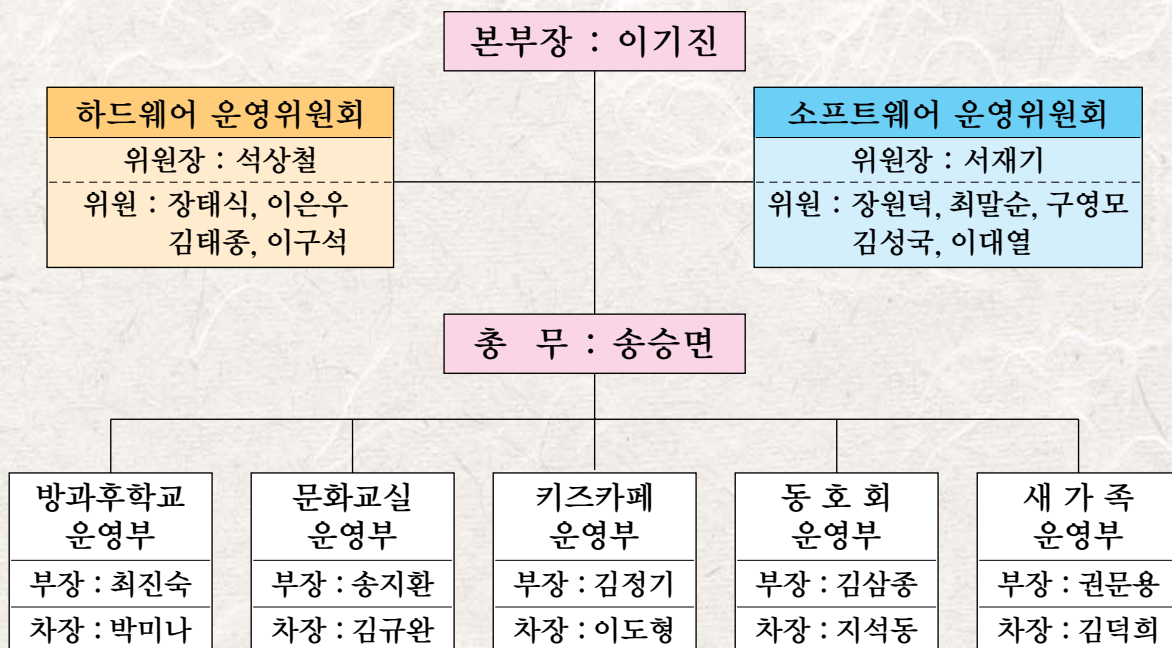
동일교회는 처음에 농가의 고추밭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예배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5,000여명(학생 2,500여명)의 성도가 모이고, 예배당 및 여러 부속 시설은 물론 어린이집에서부터 중고등부 대안학교 및 출판사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전교인 소그룹 모임이 매우 적극적이고, 교회 내 교인들을 중심으로 핸드폰 매장, 식당, 야채과일가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학교와 문화센터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었고, 아파트 전도와 구역권찰 중심의 핸드드립 커피 전도운동 교육도 특이했습니다.

동일교회 탐방 후 여러 차례 장로들의 회의를 거쳐 만들어진 계획은 전교인 설문조사(10월), 항존직 워크숍(11월 7일)을 통해 아이디어가 모아지고 내용이 구체화 되어 정책당회(11월 13일~14일)에서 구성안이 통과됨으로써 제2부흥을 위한 운동본부가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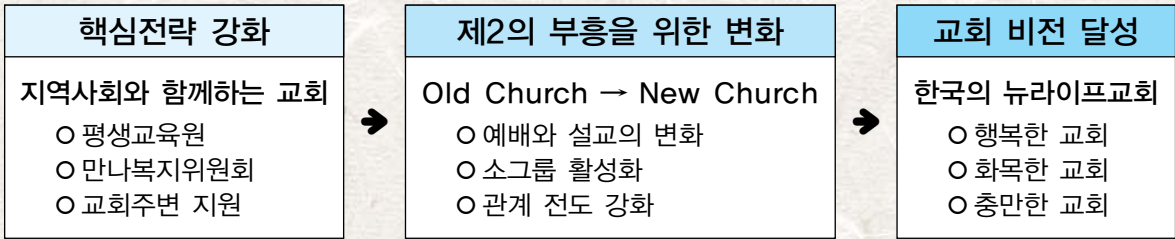
이후 운동본부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활동이 시작되어, 추진해야 할 15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즉시 추진 12사업, 장기 추진 5사업). 코로나로 인해 대면활동이 어려운 기간에는 ZOOM을 활용한 실무자 회의로 지혜를 모으고 사업 추진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

대구신암교회 「제2부흥운동본부」 소개

□ 제2부흥운동본부 조직도



□ 대구신암교회 브랜드 설정 및 추진 방향



□ 세부 실행방안

1. OLD Church → NEW Church를 위한 포맷

가. 2040 부부 세대를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축 운영

- 제2주차장 매각시 사옥신축(건평 200평)하여 주차장, 문화센터, 키즈카페 등 운영
- 예산 형편에 따라 놀이방 확장, 유치부실 이전 등 점진적 추진

나. 예배와 설교 및 신앙 훈련의 새로운 포맷

-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예배와 설교의 변화 연구
- 영성 훈련을 위한 정기적인 신앙 세미나, 부흥회 지속 실시
- 소그룹 활성화에 따른 리더 훈련
 - 구역장, 권찰, 자치회 임원 등 훈련 및 케어
 - 부목사 중심 구역별 성경 공부반 개설

2. 제2의 부흥을 위한 전도 계획

가. 효과적인 전도운동 추진

- 기존의 전도운동을 찾아오게 하는 전도로 방향을 전환(새생명축제는 폐지)
- 관계전도 및 새신자 정착을 위해 전도자에게 식사/다과비 지원
- 주일 예배 설교를 요약해서 주보에 게재하여 전도지로 활용

나. 지역주민 섬김 프로그램 개발

- 평생교육원은 개편하여 청소년 및 성인에게 필요한 문화교실을 개설 운영
- 키즈카페 또는 스터디카페를 운영하여 지역주민에게 교회문화 제공
- 원어민 및 예능강사 초빙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초등·청소년에게 교회문화 제공

□ 제2부흥운동본부 추진사업

■ 즉시 추진 가능 사업

연 번	내 용	담 당
1	여리고성 돌기 30일 침묵기도 기간 : 9월 1일(수)~9월 30일(목)	주별 담당자 및 개인희망자
2	119 경건생활 캠페인 / 교역자 정오기도회 기간 : 9월 1일(수)~10월 30일(토)	제직회 전도부, 교역자 (이창엽, 김상훈, 서경희)
3	교회 화단 정리	안수집사회(김동성)
4	야외 벤치, 그늘 쉼터 확보	안수집사회(김동성)
5	전도용품 기획	권사회(이필순, 권원자)
6	웃으며 인사 / 칭찬 운동	교역자
7	입주 아파트 인근 현수막 설치	
8	음악회 개최 준비	음영부(김경호)
9	새가족 바나바 활동인력 강화	새가족팀 (강동일, 권문용, 김덕희)
10	놀이터 전도 : 10월 활동 미리 준비	교회학교(부장 중심)
11	코로나 고통 성도 · 등록 / 지원	교구장, 구역장, 권찰 중심



홈(Home)을 향해 함께 달려갑시다!



민 경 찬 목사
(고등부)

운동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어릴 때부터 모든 스포츠에 관심도 많고 열정도 많았습니다. 그 중 가장 애정을 가지고 있는 스포츠는 ‘야구’입니다. 어린 시절, 처음으로 간 야구장에서 선수들의 열정적인 플레이와 응원 문화 속에 저는 야구에 점점 매료되었으며, 대구에서 태어나 대구에서 자라온 대구 토박이는 자연스럽게 푸른 피와 그리스도의 피가 공존하는 대구연고지 팀의 팬이 되었습니다.

야구는 지구상에 있는 구기종목 중 사람이 홈으로 들어와야 점수가 나는 유일한 스포츠입니다. 야구가 가진 철학적인 부분을 통해 우리는 ‘교회론’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 트레이드로 새로운 소속이 되었습니다. 트레이드는 프로 팀 사이에서 전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소속 선수를 이적시키거나 교환하는 일을 말합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값으로 옮겨졌습니까? 예수그리스도의 핏 값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옮겨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을 더 이상 생각지 않고 정체성과 소속이 바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 바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두번째, 같은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많은 스포츠 중에 선수와 감독, 코치진 모두가 같은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임하는 스포츠가 야구입니다. 같은 정체성과 하나의 공동체성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떤 유니폼을 입은 자들일까요? 신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교회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유니폼을 입은

믿음의 팀이요 하나이며, 한 몸, 한 가족으로 한 마음을 품고 같은 목표, 궂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번째, 모두가 싸인에 집중합니다. 모든 스포츠는 작전이 지시되고 선수의 기량에 맡깁니다. 하지만 야구는 공을 칠지 기다릴지, 투수가 어떤 공을 던질지 모두 감독의 싸인으로 진행됩니다. 핵심은 모두가 싸인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싸인을 놓치거나 잘 못 이해한다면 경기의 흐름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교회된 우리가 모두 집중해야 할 싸인은 바로 말씀입니다. 교회는 열심을 가진 자만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며 배우고 확신한 일에 함께 거하여야 합니다. 교회는 말씀을 통해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번째, 차별이 없습니다. 스포츠마다 종목에 따라 적합한 선수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야구를 보시면 선수의 모습이 다양합니다. 키가 작거나 큰 선수, 뚱뚱한 선수, 마른 선수, 안정을 쓴 선수 등.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공통적이며 보편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종이나 성별, 지위나 교육수준 등으로 차별하지 않고 모든 자들을 포괄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마지막으로, 홈을 밟아야 합니다. 야구는 집(Home)을 떠나 1루, 2루, 3루를 돌아 홈베이스를 밟아야 점수가 납니다. 아무리 멋진 3루타를 쳐도 홈에 들어오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는 함께 본향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며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자들입니다. 죄로 인해 추방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된 ‘이미와 아직’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소망하며 함께 홈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각자 응원하는 팀이 다르고, 야구를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 주듯, 팀의 소속감, 팀의 색깔, 팀의 정체성을 분명히 기억하여 믿음의 경기를 승리하며 달려가는 우리 교회, 교회된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나는 아이들



고 은 혜 전도사
(유치부)

주일 아침, 부모님 손을 잡은 아이들이 하나둘씩 유치부실로 모여듭니다. 부모님과 인사를 나누고 나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발열 체크를 위해 이마나 손목을 내밉니다. 준비한 헌금을 두 손으로 예쁘게 헌금함에 넣고, 간식 가방을 선생님께 드리고 나서야 아이들은 오늘은 어디서 예배를 드릴지 고민하며 마음에 드는 자리로 갑니다. 찬양이 시작되고 아이들은 울동 선생님을 따라 몸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두근두근 예배’와 ‘예수님과 빠라빠빠’라는 찬양이 나오면, 아이들은 가장 행복한 표정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신나서 찬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기뻐 춤을 췄던 다윗왕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전도사님’하고 불러주는 아이들의 목소리로 시작된 설교는 어느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고 고백하는 아이들의 대답으로 채워져 갑니다. 예배를 마치면 다음 시간은 아이들이 가장 기다리는 공과공부 시간입니다. 유치부 아이들은 오늘 들은 말씀을 복습하는 활동이 있는 공과공부 시간을 가장 좋아합니다. 유치부에 와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만들기 언제 해요?’ 일 정도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공과공부 시간이 오면 아이들과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만들기 활동을 합니다. 자그마한 손으로 공과를 완성하고 나면 행여나 망가지지 않을까 조심조심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코로나19 이후 유치부의 모습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웅기종기 함께 앉아 예배를 드릴 수도, 반별로 모여 공과공부를 할 수도, 간식을 나눠 먹을 수도, 무엇보다 마스크를 끼지 않고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많은 제약 속에 한 주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이 있기에 저와 선생님들은 또 힘을 내어 달려갑니다.

하루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아이들이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와 ! 하나님이다 ~ !

“와! 하나님이다~!”는 이번 영아부 성경학교의 주제입니다. 에스겔 37장과 47장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께 아이들의 입술로 함께 고백했습니다. 영아부 친구들과 교사, 부모님 모두 한 목소리로 “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어.” 라고 외쳤습니다.

3주간 진행된 성경학교에는 말씀과 연계된 특별활동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마른 골짜기의 뼈들이 살아나는 말씀을 상상하며 종이컵과 야광 팔찌를 활용한 활동을 하였고, 성전에서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말씀을 상상하며 거품물감 놀이도 했습니다. 어린 꼬마들이지만 입을 꼭 다문 채 제법 진지하게 따라하는 모습이 기특하고 고마웠습니다. 이런 영아부 친구들을 섬기면서 보람과 큰 기쁨을 맛보고 있어 감사합니다.

성경학교가 진행됐던 8월은 방역 수칙이 강화된 시기라 매우 조심스러웠지만 철저히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하며 방역에 잘 따라준 영아부 친구들과 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한 연 옥 권사
(영아부 부장)



비밀의 문을 열어라 !!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

2021년 아동부 여름성경학교의 주제는 “비밀의 문을 열어라!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끝이 보이지 않는 현재진행형이지만 지난 여름 성경학교를 돌아보니 그 때가 최선의 때였다는 감사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라면 불가능이 없기에 우리는 다시 회복되고 부흥될 것을 기도하며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에스겔의 때와 같이 지금 우리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닿는 모든 곳이 살아나고 번성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이들과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활동했습니다.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작지만 우리도 동참하게 되기를 기도하였고, 귀로만 들던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실천하기를 다짐하였습니다. 한해의 반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조 은 숙 권사
(아동부 부장)



우리 아동부와 함께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남은 시간들도 온전히 맡기려 합니다. 대구신암교회 성도님들~ 교회의 미래가 될 아동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따뜻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예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유치부 부장으로 섬기고 있는 이경희 권사입니다.

Q. 코로나로 여름성경학교 준비하기 힘들지 않았나요?

유치부 선생님들이 잘 해주셔서 어려움은 없었는데, 참여하는 친구들이나 학보모님들이 여러모로 성경학교 참여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거나 힘들게 여기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수밖에 없었는데, 예상보다 많은 친구들이 참여하고 무엇보다도 은혜 가운데서 성경학교가 잘 진행되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경 희 권사
(유치부 부장)

Q. 이번 여름성경학교 진행하면서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여러모로 활동에 제약이 있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유치부 친구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 성경학교 주제가 '와! 하나님이다' 였는데,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이나 토박 토박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외치면서 참여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제가 늘 기도할때마다 유치부 친구들처럼 깨끗한 영혼에 하나님의 모습 아름답게 그려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름성경학교에 참여한 친구들 모습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알아가는 모습을 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치부 교사로 섬기고 있는 마하나임 송지은입니다. 서울에서 공부하다가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직전에 교사로 합류하게 되었는데요, 8월 8일부터 22일까지 열렸던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와! 하나님이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Q. 코로나로 여름성경학교 준비하기 힘들지 않았나요?

코로나로 힘들었다기보다 유치부 교사로는 처음 사역하는 것이라 어떻게 친구들을 만나고, 교사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할 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런 저런 생각이 많았지만 전도사님이랑 유치부 교사들이 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친구들이 잘 따라주어서 힘든 일없이 여름성경학교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송 지 은 성도
(유치부 교사)

Q. 이번 성경학교가 코로나 이전과 다른 점이 있나요?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인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참여하는 친구들이나 교사 모두 안전한 성경학교가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물론 이전 성경학교처럼 물놀이와 같은 활동이 없어서 아쉬웠지만, 제한된 상황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 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오랜만에 교회 동기들과 함께 성경학교 봉사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성경학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성경학교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Q. 유치부 친구들과 학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친구들이 조금 더 예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유치부 교회학교가 되었으면 좋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교회학교로 자녀를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친구들이 커 가면서 걸음도 빨라지고 쑥쑥 자라는 것처럼, 교회학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성장하도록 함께 기도하며 섬기겠습니다. 이 사역 더 잘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교회학교의 꽃은 역시 여름수련회! 피날레는 달란트 잔치로!!



김정학 집사
(중등부 교사)

우리 중등부는 2021년 부임하신 이재운 부장집사님의 계획하에 이상원 전도사님이 매일(월요일, 주일은 제외) 유튜브를 통하여 신약성경 말씀 한 끼(1장) 읽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 Hol-Teen TV) 이런 시간을 통하여 하루에 한 번씩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코로나로 쉽게 잃어버릴 수 있는 신앙을 지킬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안타깝게도 중등부 학생 중 1,2학년 학생들은 역동적이고 은혜로운 야외 여름수련회를 (중등부 교사의 자부심!!) 겪어보지 못한 세대들입니다. 마음 한 곳에는 안타까움이 느껴지지만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에 우리가 겪어야 할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하기에, 우리 교사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는지,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특별한 은혜로운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중등부는 코로나19 가운데서도 7월 18일(주일), 25일(주일) 2주간 “이렇게 하라”는 주제로 안전하고 은혜로운 여름수련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완벽한 방역을 통한 안전한 수련회가 되기 위하여 2주간 이상원 전도사님의 인도 아래 15일동안 릴레이 기도시간을 가졌으며, 참석하는 모든 예배자(교역자, 교사, 학생)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수련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뜨겁게 교제하는 안전한 수련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 드렸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열정은 코로나 바이러스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7월 25일에는 코스별 올림픽 게임, 일심동체, 방탈출 게임으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재치와 협동심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계기의 장이 되었고, 3개 조로 이루어진 조별간의 여러 게임들을 통하여 모두 유쾌하고 재미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예배시간과 유튜브 말씀 한끼, 그리고 수련회 기간에 모은 달란트로 달란트 잔치를 통하여 상반기 행사를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구신암교회 성도 여러분!

비록 코로나 때문에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여름수련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홀틴(Holy-Teen)중등부가 우리 교회의 소중한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중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김국섭 안수집사
(고등부 부장)

사실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무거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실내 프로그램 위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아쉽고 안타까웠습니다. 교회학교 사역, 특히 고등부에서 수련회는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시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 많고, 또한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자면서 친구들이 많이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번 수련회를 통해 상황과 여건이 어떠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8월 첫째 주와 둘째 주일에 걸쳐 요한일서 4장 7~8절 말씀을 주제로 생명을 줌(ZOOM), 사랑을 줌(ZOOM)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달 전 미리 친구들이 수련회에 초청할 새친구(태신자)를 작성하고 친구의 얼굴이 그려진 기도카드를 만들어 고등부실 뒷벽에 붙여 놓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선생님들과 학생임원들은 4개 팀(환경정리/굿즈제작/코스미션/레크레이션)으로 역할을 나누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수련회를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엄중한 코로나 시국에 하나님께서는 새친구를 4명이나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선생님들의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 예쁜 포토존과 실내장식, 멋진 수련회 배지와 이름표, 친구들의 흥미를 확 끌어올린 코스미션, 그리고 학생 임원들의 재미있는 게임 진행 등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롬8:28)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는 지금도 우리 곁에 있지만,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실(시54:4)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욱 넘치는 대구신암교회 고등부가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변함없는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내 발의 등, 내 길에 빛!



박 영 자 권사
(사랑부 부장)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는 말씀 아래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 내 길의 빛”이라는 주제로 2021년 여름 성경캠프가 진행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관계로 먼저 성경 말씀송 사운드북을 각 가정으로 보내어 열심히 들으며 암송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4주 간에 걸쳐서 익히고 익힌 10개의 말씀송으로 동영상을 찍어서 전체가 볼 수 있도록 단체 대화방에 올리게 했는데 그 올려진 결과물들을 보면서 너무 감격했습니다. 교사들에게도 조금은 어려운 것 같은 말씀송을 친구들이 거침없이 부르기도 하고, 각자 재능대로 표현하며 너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입으로 씩씩하게 말씀송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친구들, 또는 말씀송 찬양을 열심히 들으며 즐거운 표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하면, 스스로 말씀송을 틀어놓고 찬양에 따라 온몸으로 몸을 흔들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찡하고 뭉클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비록 사랑부 친구들이 많이 약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사랑부 친구들을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사랑부 담당 김정희 목사님께서 세심하게 사랑부 친구를 위해 신경 써 주시고 감직한 아이디어로 저희 교사들과 사랑부 친구들은 항상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더불어 평범하지 않은 성경캠프임에도 교사들 또한 적극적인 열심과 넘치는 사랑으로 섬겨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서로가 견제하며 멀리 하려고들 하지만, 사랑부 주제처럼 우리의 빛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면과 비대면이 자주 바뀌면서 대면으로 예배드리기를 갈구하는 사랑부 친구들의 소식을 들으며 속히 자유롭고 활기차게 모여 예배드리는 날이 오기를, 내년에는 꼭 넓은 현장에서 성경캠프하기를 기대해봅니다. 



넘치는 은혜를 받은

마하나임

살롬~ 저는 22살, 박예림입니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라'는 주제로 열렸던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Q. 이번 여름수련회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면?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드물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뜨겁게 예배하면서 다시 신앙적으로 회복하고 싶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Q. 수련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제일 좋았던 것은 마하나임이 함께 뜨겁게 찬양하면서 기도했던 시간입니다. 다시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결단했던 귀중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상태였다는 것은 아시겠죠??)

Q. 수련회 때 결단했던 내용이나 기도제목이 있다면?

올해 경찰시험에 합격해서 입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결단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힘든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



박 예 림 성도
(청년 마하나임)





마하나임 대표로 섬기고 있는 권영신입니다.

Q. 코로나로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다면?

제일 중요했던 점은 역시 방역수칙입니다. 수련회 프로그램 역시 방역수칙에 따라 기획하고 참여하는 마하나임 지체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기획하였습니다.



권영신 성도
(청년 마하나임)

Q. 이번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코로나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우리 예상보다, 기대보다 더 넘치는 은혜를 받은 수련회였습니다. 짧은 시간, 한정된 공간에서 드러진 수련회였지만 마하나임이 오랜만에 모여서 함께 은혜받는 시간이 되어서 감사함이 넘치는 수련회였습니다. 마하나임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재 온누리교회 한영철 전도사

저는 한광석·최말순 장로님의 아들이구요, 사랑하는 아내, 소은(6), 서준(4), 예준(2) 세 자녀와 함께 이쁘게 살고 있습니다. 현재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예배사역을 섬기고 있는 한영철 전도사입니다.

Q. 예배사역은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온누리교회에서 찬양사역을 감당한지 약 7년 정도가 되어서 처음부터 신학을 한 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제 전공은 디자인이었습니다. 청년 때까지 해도 친구들과 놀기 좋아하고, 신앙에는 관심조차 없었던 모태신앙인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의 권유로 DTS(예수제자훈련학교)에 참여하게 되었고, 12주 동안 그리스도인의 제자훈련 강의를 듣고, 12주의 전도여행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가게 되었는데, 그때 인도네시아에 강력한 지진과 해일 때문에 수십만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재난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일정대로 선교지를 방문하였다면 큰 위험에 직면 했을텐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인도하셔서 12주의 전도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기적과 같은 일이 계기가 되어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의 도구로 부르시는구나’ 깨닫게 해주셨고, 사역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여 영남신학대학교로 편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대구 예수전도단 화요모임 찬양팀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무렵 예배사역에 내 삶을 드려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대구신앙교회를 거쳐 온누리교회 예배찬양사역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

찬양을 단순히 노래하고 연주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세상 음악과 다를 바 없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아름다운 가사나 감각적인 리듬보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기반이 없으면 찬양은 단순한 노래와 다를 바 없고, 예배는 공연과 비교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행하신 일과 은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배사역자는 음악적 요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며, 표현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저 또한 그런 예배자가 되기 위해 오늘도 치열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보잘 것 없는 작은 몽당연필일지라도 아름다운 걸작품을 그릴 수 있음을...”

Q. 대구신암교회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다면?

대구신암교회는 저의 어린시절과 청년의 시절이 남아 있고, 부모님께서 여전히 섬기고 계신 교향 집과 같은 교회이고, 교회학교 제 동기들과 함께 했던 추억들이 떠오릅니다. 수요일예배시간 마칠 때까지 교회에서 함께 뛰어놀았던 것, 수련회를 열심히 참여하지 않아서 선생님께 야단맞았던 일, 형 동생들이랑 운동하러 다닌 일들 모두 그림과 소중한 추억입니다. 그 친구들은 지금 저의 든든한 동역자이자 후원자가 되어주고 있구요. 대구신암교회 교회학교를 통하지 않았다면 과연 이렇게 소중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 더욱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평생 함께 하는 동역자나 후원자를 대구신암교회를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또한 함께 성장하게 하셨음을 바라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Q. 함께 기도할 제목 나눠주세요

첫번째는 어머니 건강이 속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제가 곁에서 보살펴 드리지 못해서 늘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번째는 사역자의 가정이 아니라 사명자의 가정으로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Q. 대구신암교회 성도님께 드리는 말씀이 있다면?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이지만 매일매일 말씀으로 새힘 얻으시고, 날마다 성령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예배처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다음세대가 우리 교회의 미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로 응원해 주시고 아낌없는 사랑과 격려로 아름답고 든든히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시온찬양대

홍성수 안수집사

시온찬양대에서 지휘자로 섬기고 있는 홍성수 안수집사입니다. 신명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대구학생문화센터 유스夸이어 소년소녀합창단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Q. 찬양대 지휘 대신 예배특송으로 섬기시는 소감?

찬양대 할때보다 혼자 예배찬양을 감당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많아졌습니다. 혼자 오롯이 찬양해야 하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해야 하지만, 가사에 집중하다보니 은혜가 되는 때가 많기도 합니다.

그런데 2년 넘도록 혼자 찬양하다 보니까 문득 '이러다 찬양대하는 법을 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매주일 찬양대원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 마치고 교제 나누던 일들이 성도들 기억에서 사라질까 몹시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

코로나로 인해 찬양대원분들이 세대교체에 대한 생각이 빠르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연세가 있는 분들은 찬양대 사역을 내려 놓으려하고, 반면 그 자리를 채워줄 젊은 세대는 새로 유입 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의 지속여부와 상관없이 찬양대에서 자신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2년 가까이 모이지도 못했고, 그 공백으로 인해 찬양대 사역이 마음에서 멀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찬양드렸던 본인의 자리를 기억하고, 그 자리를 쉽게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찬양드렸던 본인의 자리를 쉽게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Q. 사랑하는 찬양대원들에게 한 말씀?

우리 모여서 찬양한 지 참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로 온지 올해로 12년째인데, 그 기간 동안 함께 찬양하며 쌓아온 교제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한 느낌도 받지만, 쉽게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오히려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시기로 삼고, 우리 다시 하나님 앞에서 성도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찬양대가 되길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부디 쉽게 자신의 자리 내어주지 마시고 다시 함께 찬양하게 되는 날이 오길 사모합니다. 그때까지 건강 지켜셔야 합니다.

Q. 나에게 대구신암교회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평생 섬길 예배 처소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성가대 지휘자로 소개받고 왔을 때는 몰랐는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귀한 자리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마음 변치 않도록 기도하며 섬기겠습니다.

Q. 코로나로 교회 나오지 못하고 계신 성도님들께

우리 함께 예배드릴 때까지 온라인예배를 통하여 예배자리 잘 지키시고요. 가능하시다면 직접 예배에 나오셔서 함께 얼굴보며 교제하길 소원합니다. 아무래도 온라인예배는 교제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낮예배부터 오후예배까지 함께 드리는 날이 속히 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때는 말이야

그때 그시절 교회학교 이야기

“흰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해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손에 손을 마주잡은 우리 어린이
발걸음 가벼웁게 찾아가는 길
즐거운 여름학교 하나님의 집
아~ 진리의 성경말씀 배우러 가자”

- 여름성경학교 교가 중 -

매년 이맘때가 되면 이 노래 생각나시나요? 코로
나로 인하여 여름성경학교의 모습도 많이 달라졌
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기억에 존재하는 여름성경
학교, 교회학교의 기억은 어떤가요? 신암회보에서는
예전의 교회학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교회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코너를 기획해 보았
습니다. 일명 ‘라떼 스토리’ 읽으시면서 그때 그시절
교회학교를 추억해 보시죠

그 시절 친구들, 선후배들을 보면 마치 고향 친구들
만나는 것처럼 기쁘고, 함께 추억을 나누다 보면
다시 그 시절 까까머리로 돌아가는 듯이 기쁘고
소중한 시간....



권 태 호 은퇴장로
(제1교구 신암9구역)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968년 중학교 2학년 때, 강원도에서 아버지(故 권해원 장로)따라 대구신암교회에 출석하게 된 권태호입니다. 그 후 대구신암교회를 제2의 고향으로 삼고 살아온 저는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신앙을 가지게 되셨나요?

외할머니의 권유로 아버지께서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이후 온 집안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광부이셨던 아버지께서 믿음 생활하시면서 술담배를 끊으시는 모습이 계기가 된 듯합니다. 그때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후, 대구로 전학오면서 대구신암교회에서 주옥 믿음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 교회학교는 어땠나요?

그때는 지금처럼 전문적인 신앙프로그램들이 없어서 특별히 기억나는 행사 같은 것은 없어요. 그저 교회학교 나와서 선생님 만나고, 무엇보다도 친구들과 만나는 자체가 즐거웠지요. 사실 신앙적인 것은 기억이 없구요. 선생님들 말씀 안 듣고 농땡이친 것과 친구들끼리 어울려서 놀던 일들은 기억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아껴주고 사랑해 주셨던 선생님, 함께 어울렸던 친구들을 뚜렷하게 기억합니다.

그때 인상적인 선생님이나 교회학교 친구들이 있을까요?

중등부때였나? 경북대에 다니던 도상순 선생님이라고 계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대학생이 무슨 돈이 있으실까 싶은데, 맛난 것도 사 주시고 시시때때로 선생님 집에 가서 이야기하고 함께 어울렸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그 다음해 입대문제로 대구를 떠나실 때 누구보다 많이 아쉬웠던 것도 다 그런 친밀함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교회학교 시절을 떠올리다 보니 윤강진이라는 후배에게 상처를 주었던 일이 생각납니다. 그때는 교회학교 선후배 간의 서열을 잡는 전통이 있었는데 유독 그 후배를 많이 혼낸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많이 상처받았을 것 같고, 지금까지 미안함이 남아있습니다.

그때 함께 어울렸던 친구들 중에 지금은 우리 교회에 남은 친구들이 별로 없지만 서재기, 김성국, 김삼중과 같은 후배들이 지금까지 한 교회를 섬기고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이루 표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타지역에 있다가 우리 교회 방문하는 그 시절 친구들, 선후배들을 보면 마치 고향 방문하는 친지들 만나는 것처럼 기쁘고, 함께 추억을 나누다보면 다시 그 시절 까까머리로 돌아가는 듯이 감격스럽고 소중한 시간이 되어 좋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학교 운영이 많이 어렵습니다. 교회학교에 대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제가 교회학교를 다니고, 교사로 섬길 때와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코로나도 없었고, 무엇보다도 그때는 별다른 프로그램이나 특별한 이벤트가 없어도 친구를 사귀거나 관심받고 싶은 친구들은 무조건 교회로 나오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고, 만나서 챙겨 주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도 못하고, 무엇보다 친구를 만나려고 교회학교 나오는 경우가 드물겠지만 그럼에도 교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는 드릴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의 외로움은 채울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학교 운영이 어렵고 교사로서 역할도 힘들겠지만 교회학교 친구들과 교제하고 공동체 간의 친밀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교제와 관계 회복에 노력하고 힘써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관심을 가지고 교회학교를 위해 부지런히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대구신암교회란?

평생 자리잡고, 변함없이 살아가는 내 인생의 터전





김삼중 안수집사
(제2교구 동서변1구역)

🏠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시온찬양대와 동서변1구역을 섬기고 있는 김삼중 안수집사입니다. 작년까지 신명고등학교에서 32년간 교사로, 학원선교사로 섬겼구요, 작년에 퇴직한 이후 전기감리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 교회학교 교사로 오래 섬기셨는데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고등학교 졸업 후, 유치부 교사를 시작으로 교회학교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아무 훈련되지 않은 상태로 유치부교사가 되었지만, 아이들과 지내면서 많이 성장하고 교사로서 보람을 느낀 시기였습니다. 그 이후 인도네시아 발리 선교사님으로 계신 허성순 집사님이 소년부 부장이셨을 때 제가 '디모데 어린이 학교'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친구들을 지도해 보겠다고 자원하면서 소년부 교사가 되었습니다. 디모데 어린이학교는 디모데집사처럼 교회학교를 세워갈 사람을 키우는 교육 프로그램이었는데, 부장집사님의 후원에 힘입어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뒤로 고등부, 중등부 도합 20년을 교회학교 교사로 섬겼습니다.

🏠 교사로 봉사할 때 가장 인상적인 에피소드 이야기해 주세요.

유치부 교사할 때가 재수를 하던 때입니다. 그때 부장집사님으로 허현순 원로장로님이 계셨는데, 여름방학 지나고 입시 때문에 잠시 교사를 내려놓겠다고 말씀을 드렸다가 혼쫓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봉사할 것 같으면 아무것도 하지마라”는 장로님의 말씀이 그 당시에는 섭섭했지만, 지금껏 교회학교 교사로서의 마음가짐에 있어 큰 영향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제대 후 중고등부 교사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제게 학원선교사역의 마음을 주셔서, 이후 신명고등학교에서 32년 동안 교사로 학원선교사로 봉직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교회학교를 통해 천직을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 교회학교의 유익한 점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저의 신앙은 청년부 때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장하였습니다. 생각해 보면 제가 특별한 영적 경험은 없었지만, 지금껏 신앙인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떠한 환경에도 주일예배에 빠지지 않고 주신 은혜와 달란트로 힘껏 섬기셨던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자란 것이 큰 영향이고, 그 다음으로 교회학교를 통하여 신앙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좋은 기초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헌신된 교사와 친구들과 교제를 통해 공동체를 느끼고, 함께 신앙생활하며 성장할 수 있는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데 최고의 훈련코스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학교 운영이 많이 어렵습니다. 교회학교에 대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현 시대 교회학교 교사들이 많이 힘드실 줄 잘 압니다. 그럼에도 열정을 가지고 교회학교 아이들을 만나고, 소통을 통해 관계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교회학교 교사만큼 개인의 성장을 이루고, 만나는 아이들을 통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역이 없습니다. 교사들이 아이들을 향한 열정이 유지되도록 교회가 지원되기를 바랍니다.





이 호 정 집사
(제1교구 부부2구역)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부부2구역에 소속되어 있고 고등부 교사로 섬기고 있는 이호정 집사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게 되셨나요?

중학교 1학년 때 친구 심강훈(한연옥 권사 아들) 따라 처음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20살 첫 여름수련회에서 골방기도회를 가졌는데 그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은혜 받고 헤븐스 찬양사역 했던 것들, 중국 아웃리치에 가서 은혜 받았던 일들, 무엇보다도 함께 사역하고 동역하였던 친구들, 마하나임 형·누나들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저는 가족들이 믿지 않고 혼자서 신앙생활하고 있었는데 형·누나들이 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소외되지 않도록 많이 챙겨 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억나는 사례가 있다면?

20살 때였어요. 처음으로 해외아웃리치 나가서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고 돌아왔을 때입니다. 한참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호기심이 많을 때라 아웃리치 다녀온 바로 다음날, 친한 동기들, 형들이랑 평화시장에서 닭똥집을 먹으며 은혜를 쉽게 탕진하고 왔는데 마하나임 누나들한테 딱 걸렸어요. 실명을 밝혀도 되나요? 두 누나에게 호되게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케냐에서 선교하시는 윤선경 선교사를 통해서 신앙적으로 많이 도전받고 배우기도 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너무 귀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게 동생을 살려준 덕분에 신앙이 어긋나지 않고 잘 살아온 것 같아요. 누나들한테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를 떠나 있는 친구들에게 한마디

저는 진짜 신앙의 기초가 없는 상태로 교회에 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교회 오는것이 너무 좋았어요. 교회 오는 것이 좋으니까 하나님도 좋아지고, 봉사하는 것도 좋아지더라구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같이 동역하는 이도 좋아지고, 같이 교제하며 기도해 주는 사람도 점점 좋아지더라구요. 공동체 안에서 동역하며 교제하는 사람들은 다 주님 안에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힘들게 해서 싫을 때도 있고 보기 싫을 때도 있지만 다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오랜만에 봐도, 가끔 만나도 반갑고 무엇보다도 식구끼리는 꼭 만나야 하잖아요. 여러분 꼭 돌아오세요.

 나에게 대구신암교회란?

교회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힘들 때는 함께 기도해 주고 때때로 피난처가 되기도 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 저한테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대구신암교회를 사랑합니다.



신 정 우 성도
(청년 마하나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마하나임 22살, 신정우입니다. 아동부에서 교사로 섬긴지 4년째이구요, 신재원·정진희 집사의 큰딸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대부분의 모태신앙인이 그렇듯 교회학교에 열심히 다니고 신앙적으로 평탄하게 지내온 것 같습니다. 아동부 시절 어와나를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네요. 팀을 나누어 트랙을 돌거나 퀴즈를 열심히 풀던 기억이 납니다. 중고등부 시절 열심히 수련회 따라다녔고 마하나임에 와서 해븐스, 임원으로 봉사하면서 신앙적으로 많이 성숙해진 것 같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로서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몇 년전에 경주에서 여러 교회와 연합해서 여름성경학교를 했을 때입니다. 체력적으로는 힘들었지만, 아동부 친구들이 저를 많이 의지하고 따라주어서 보람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중고등부 시절을 떠올릴 때 떠오르는 장면은?

고등부에서의 마지막 수련회가 기억납니다. “jesus is”라는 주제를 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나눴던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나에게 교회학교 동기들은 어떤 의미인가요?

중고등부 교회학교를 같이 지내온 친구들이 다같이 청년부에 올라왔지만 학업이나 여러가지 이유로 자주 만나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늘 의지가 되어주는 관계입니다. 청년이 되면서 사실 많이 자유로운 상황에 놓이게 되다보니 신앙적으로 쉽게 흔들리고 무너질 가능성도 높은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동역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덜 흔들리고, 때론 힘들 때라도 기도로 함께해 주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청년부 올라와서 언니,오빠들이 믿음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런 것이 믿음의 공동체가 아닐까 합니다.

코로나시대에도 굳이 공동체 활동이 필요한 이유는?

혼자서도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도 믿음생활 할 수는 있지만 집중하기 어렵고, 오래 지속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청년부 올라와서 교회학교 시절보다 신앙적으로 더 알고 싶고 성숙하고 싶은데, 혼자서는 이뤄가기 힘들더라구요. 예배를 함께 드리고, 소모임하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하면서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무엇보다도 서로 기도해 주는 공동체가 있어서 든든한 느낌을 줍니다. 코로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공동체 교제와 소통은 더욱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하나임은 제 영적성장을 위한 필수요소입니다.

나에게 대구신암교회란?

내 친구들이 많이 있는 놀이터입니다. 어디가도 이렇게 안전하고 재미있는 놀이터는 없어요.^^

우리 대구신암교회를 소개합니다.

대구신암교회를 방문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대구신암교회는 1945년 10월 14일 교회를 창립한 이후 섬김과 봉사로 지역사회를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며 대구의 복음화를 위해 힘써 왔습니다. 이제 대구신암교회는 과거 믿음의 선배들이 이룩해 놓은 아름다운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면서 한편으로는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교회로 발돋움해야 합니다. 제가 이상적인 교회로 모델 삼고 있는 교회는 미국의 중부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뉴라이프교회(New Life Church)입니다. 원래 이 교회 주변에는 사탄숭배, 주술, 그리고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영적인 불모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들어섬으로 지역의 영적인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고 지금은 세계적인 가정전문사역 단체인 Focus on the Family와 함께 지역의 영적인 흐름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의 앞마당에는 ‘세계중보기도센터’가 있는데 이 곳에서 그 교회의 성도들은 기도의 용사가 되어 하루 24시간 동안 끊임없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구신암교회가 이 교회를 모델로 삼고 끊임없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민족과 열방을 품는 ‘한국형 뉴라이프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를 성시화하며 나아가 침체된 한국교회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부흥의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회는



다음의 세가지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꿈꾸며 달려가고자 합니다.

첫째, 행복한 목회를 지향하면서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교회, 그 교회는 주일이 기다려지는 교회입니다. 예배가 기다려지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문을 나서는 성도들의 얼굴에 영적인 만족감으로 행복감을 찾을 수 있는 교회입니다.

둘째, 화목한 목회를 지향하면서 화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화목입니다. 이를 위해서 서로 한 걸음씩 물러서서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초대교회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셋째, 충만한 목회를 지향하면서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물질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시대 속에서 상대적으로 영적 빈곤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영적인 안식과 풍요로움을 줄 수 있는 교회, 그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임재속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이 가슴 뛰는 비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룩한 대열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대구신암교회 신나는 토요일학교

1. 신암어린이합창단

신암어린이합창단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 교육 대상 : 초등학교 1학년~중학교 2학년
- 장소 : 찬양대실



2. 토요일공부방

토요일공부방은 학습 지도를 통하여 교회 안의 학생들과 교회 밖의 학생들을 섬기며 전도의 장을 넓혀가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어, 초등학교부터 중학생까지 소그룹으로 모여 수학과 영어를 지도 및 학습하고 있습니다.

- 교육 대상 : 초등학교 1학년~중학교 3학년
- 장 소 : 소그룹실





신암평생교육원

1. 대구아름다운학교



시대적 상황과 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의 기회를 잃은 이들과 외국인 근로자들과 이주 여성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돕는 성인 기초문해교육 프로그램으로써 인간의 권리 존중을 위한 교육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1988년 3월 시작하였다. 평생교육의 기초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문해교육을 자원 봉사자들을 통해 교육을 제공하고 2002년 성인용 한글교재 기초~10단계(11권)과 2003년 성인용 수학교재 1~4단계(4권)를 발행하여 전국 750여개 이상의 기관과 단체가 함께 이용하고 있다. 현재 기초교육과정과 생활교육과정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 교육 대상 : 성인 남녀(학력, 연령 무제한), 다문화가정
- 교육 기간 : 매주 화, 목요일 오전 10시~오후 12시 (야간)오후 7시~오후 9시

2. 신암실버대학



신암실버대학은 대구신암교회에 출석하는 65세 이상 성도들과 지역 내 어르신들에게 기독교 신앙 안에서 영적 성장을 이루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노년기에 자긍심을 갖고 가족과 사회에 덕이 되는 생산적 고령자로 살아가도록 도우며 건강한 노인상을 확립

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하여 신암실버대학에서는 성경통독과 성경 공부, 건강 및 교양상식 등 참여자들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문화활동과 전문 강좌를 개설함으로써 행복하고, 화목하고, 충만한 모임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합니다.

- 교육 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금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

3. 행복한 유니게학교



행복한 유니게학교는 '믿음의 부모, 믿음의 자녀' (디모데후서 1장 5절)라는 교육 표어 아래 18~48개월의 유아와 그 가정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유아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디모데어머니 '유니게'의 이름을 따라 개설되어 매주 토요일에 실시됩니다.

- 교육 대상 : 생후 18개월에서 48개월의 어린이와 보호자 1인
- 교육 기간 : 1학기(3월 둘째 주 토요일~5월 마지막 주 토요일)
2학기(9월 둘째 주 토요일~11월 마지막 주 토요일)
- 교육 시간 :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12시 10분



신암만나복지위원회 - 지역돌봄

1. 취약계층 지원사업

신암만나복지위원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실천을 위해 지역 내·외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쪽방지원사업, 독거노인지원사업, 독거노인 환경개선지원사업 그리고 노숙자 및 극빈자들을 위한 긴급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돌보는 사역입니다.

무료급식사업은 지역의 무료급식소인 예사의 집과 연계하여 실시 합니다.



쪽방지원 사업 및 독거노인 지원사업



독거노인 가정환경 개선 지원사업



무료급식 사업

2. 장애인지원 사업

신암만나복지위원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실천을 위해 대구지역 발달장애(지적 장애, 자폐성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문화, 재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사회적응력과 심리적 안정감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장애인가족의 양육부담감을 경감시킴으로써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주말 돌봄 사업 : 겨자씨 토요학교

지역 내 7세 이상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 문화, 재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 대상 : 7세 이상 발달장애인

-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지역 내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여행, 교육, 상담, 정보안내 사업을 실시한다.

- 대상 : 지역 내 장애인가족





특별프로그램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어와나(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Awana는 딤후 2:15절 말씀을 바탕으로 어린 영혼들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성장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나아가 지역교회가 어린이와 청소년, 나아가 그들의 가정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하고, 훈련하며,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키는 일을 하도록 돕습니다. Awana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지역교회로 이끌어 그들이 예수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도록 영적 진리를 배울 수 있도록 만듭니다.

- 불티단(Sparks)은 정규학교 입학 1년전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불티단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소년 소녀들에게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 T&T(TRUTH & TRAINING)이라는 이름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소년, 소녀들의 열정을 반영하는 단어로서, Truth(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Training(훈련)은 그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만드는 영적인 훈련을 의미합니다.
- AWana트랙클럽(Track Club)은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일년365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암송하고 토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에게 주신 소명 Destiny을 발견해 가는 중학생들(14~16세까지의 청소년) 3년간의 영적 여행 Track입니다.
 - 대상 : 7세부터 중등부
 - 시간 : 주일 오후 2시
 - 장소 : 엠마오실, 소예배실



2. 사랑부

사랑부는 7세 이상 발달장애인 친구들이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 ·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부서입니다.

모든 자녀를 통해 예배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2009년 여름에 첫 예배를 드렸으며, 현재 7세 이상의 아동·청소년, 장년이 모두 함께 모이는 통합 사랑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대상 : 7세 이상 발달장애인
- 예배시간 : 주일 오전 11시~12시 30분
- 예배장소 : 사랑부실(베데스다실)



※일대일 제자양육

일대일 제자양육은 한 양육자가 제자된 한명의 동반자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삶을 나누며 서로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는 평신도 사역입니다. 이를 통하여 제자인 동반자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심을 받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탁하신 복음전파의 동역자로 섬기게 됩니다.

한 사람만을 위한 아주 특별한 제자양육 프로그램입니다.





신암동교회

신암 동호회는 은사와 취미에 따라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만들어 가는 소그룹 공동체입니다.



통 · 사 · 모	• 통기타로 ccm과 대중가요를 연주 • 버스킹을 통해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며 전도하는 모임
영 화 · 연극감상	• 좋은 영화 · 연극을 보며 활동하는 모임 • 함께 모여서 영화를 보고 나눔을 하며 교제를 나눔
바 둑 · 장 기	• 바둑과 장기를 통해 친교를 나누며 활동함 • 기존에 있는 분들을 모아 신설함
그 레 이 스	•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드리며 친교하는 모임
동 기 모 임	• 청년 마하나임 중심 모임
그 린 페 달	• 산악 자전거 모임 • 자전거를 통해 친교를 나누며 각종 활동 참여
느 린 페 달	• 산악 자전거 초보자들의 모임
풋 볼 투 게 더	• 풋살과 축구 활동 • 축구를 통해 건강한 신앙생활 및 활동하는 모임
탁 구	• 탁구를 통해 운동을 함께 하며 교제를 나눔 • 탁구를 취미생활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짐
골 프	• 골프를 통해 운동을 함께 하며 친교를 나눔
주 은 등 산	• 쉬운 등산 코스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임 • 등산을 통해 건강과 친교를 나누며 자연속에서 활동
에 덴 등 산	• 산책 하면서 건강을 증진하고 친목하는 모임 • 가벼운 산책으로 교제를 나눔
사 랑 열 매	• 야생화나 나물을 채취하면서 친교를 나눔
미 술 심 리	• 미술심리를 통해 친교하는 모임
찬 양 배 우 기	• 새 찬양을 배우며 교제함 • 찬양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는 모임
워 썩 댄 스	• CCD를 배우며 나누는 모임 • 몸찬양을 통해 친교와 교제를 하는 모임
오 카 리 나	• 오카리나 활동을 통해 친교와 교제를 나눔 • 기존에 있는 분들을 모아 신설함
색 소 폰	• 색소폰을 통한 취미생활로 친교와 연주 활동 • 색소폰을 통해 찬양을 함께 나눔



〈경북 고령군 성산면 사부리 산28-3〉

신암동산 자연장지 조성공사 안내

2021년 오랫동안 성도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신암동산 자연장지 조성공사에 대해 본보를 통해 진행상황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추진위원장이신 석상철 장로님께 몇 가지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Q1. 신암동산 자연장지 조성공사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북 고령군 성산면 사부리 산28-3번지에 위치한 신암동산은 면적 21,247㎡의 임야로 1967년 대구신암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조성되었으며, 현재 120명의 신암 성도님들이 안장되어 있는 부활동산입니다. 조성된 지 30년이 지나면서 더이상 묘지에 수용할 여력이 부족해지자 오랫동안 대체부지 또는 현부지 확장 조성에 대한 여러가지 계획을 가지고 노력하였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시행되지 못하였고 시간이 지체된 이유로 성도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2020년 정책당회에서 저를 신암동산 자연장지 조성 추진위원장으로 세워주셔서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실무책임자로 이은우 장로, 신암동산 관리위원장 김태중 장로, 묘지관리팀 김종광 안수

집사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타 교회시설 방문 및 현장답사를 거쳐 신암동산 자연장지 조성계획 안을 수립하여 당회에 제출하였고, 이를 제직회에 보고 후 지금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신암동산이 공원묘지로 허가를 득하였다는 사실인데요, 이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사실 무수한 개발업체들이 로비를 하고 수억원의 컨설팅을 받아 진행해도 공원묘지 허가를 얻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 이은우 장로의 개인적인 노력과 성도님의 중보기도 덕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결국 지난 7월에 고령군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현재 토목공사 중에 있습니다.

Q2. 새로 조성되는 신암동산은 어떻게 이용되나요?

첫번째, 신암동산 이용대상은 우리 교회 교인이어야 하고 당회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장례가 발생되면 교구장을 통하여 신암동산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문의해 주셔야 합니다.

두번째, 자연장지로 허가되었기 때문에 화장 이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세번째, 묘 1기에 2인을 모실 수 있으며, 현재 500기 기준(1,740㎡)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외 자세한 이용 규정은 신암동산 자연장지 조성 후 추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신암동산 자연장지 조성공사의 실무를 담당하고 계신 이은우 장로님께 진행과정과 성도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부분을 질문해 보았습니다.

Q3. 고령군청에서 자연장지 허가 받은 부분에 대해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면 현재 사용 중인 신암동산의 묘지는 시군구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개인 묘지입니다. 따라서 향후 우리 교회 교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기존 묘지 사용권의 안정적인 보장을 위해서도 고령군청의 자연장지 허가를 반드시 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당회에서 허가 업무를 맡아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7월말 고령군청으로부터 자연장지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Q4. 자연장지 허가 이후, 진행 상황에 대해 알려주세요.

사실 자연장지 허가가 쉽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토지개발업무만 20년 이상 했는데, 자연장지 허가를 받은 교회나 종교단체가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군구에 제출할 서류도 많고, 복잡한 절차, 공무원 조직의 이해관계, 무엇보다도 주변의 민원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조정해야하는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2월부터 지금까지 50차례 이상 고령과 신암동산 현장을 다니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진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구나.’ 기도할 때마다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지난달 자연장지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올해 추석 전 완공을 목표로 토목공사를 하던 중, 무연고 묘를 발견하여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무연고 묘는 관련 법규상 3개월 공고 후 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묘지연고자와 연락되거나 이장협의를 되어서 속히 공사가 이뤄지도록 성도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주변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교회에서 묘지공사를 한다는 소문이 나서 주변 마을과 인근 공장에서 단체로 반대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들을 잘 설득하고 이해시켜 충돌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업무를 진행하는 제가 지치지 않도록 꼭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Q5. 기존 묘지 사용자는 새로 조성되는 신암동산에 들어가지 못하나요?

기존 묘지가 조성된 지 30년 이상 되었고, 최근 땃돼지 습격으로 인해 묘지 훼손이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당회에서는 기존 묘지사용자에게도 신규 조성되는 신암동산으로 이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장비용과 자세한 규정을 마련하여 추후 공고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신암동산 자연장지 조성 이후, 교회에서 운영하던 벌초대행은 중단하고 신규 조성된 부지만 묘지 관리팀에서 관리하기로 의결한 상태라는 것도 참고해 주세요.

향후 50년 이상 우리 교회 부활동산으로 이용될 신암동산 자연장지 조성공사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일을 추진하는 추진위원회 분들에게 따뜻한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추도예배 드리기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위세를 떨치고 있어 방역지침으로 인해 공예배를 비롯하여 소모임에까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당분간 강화된 방역을 이유로 각 가정의 예배 또한 지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집에 사는 식구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 되는데, 일년에 2~3차례 드리는 추도예배의 경우는 난감해 집니다. 오늘은 특별히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추도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려 합니다. 글 순서에 따라 따라해 보시면 모이지 않고도 쉽게 추도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1. 검색창에서 줌(Zoom) 검색 후 회원가입 → 회의 시작

Pc : 네이버나 구글 검색을 통해 Zoom 사이트 입장 → 회원가입

모바일 : 플레이스토어, 앱마트에서 Zoom 앱 다운로드 → 회원가입

1) 회원가입

007shredder@naver.com  **무료 가입절차 시작**

당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십시오.

브라우저에 표시된 대화 상자에서 **Zoom Meetings** 열기을(를) 클릭합니다
 대화 상자가 표시되지 않으면 아래 **회의 시작을(를)** 클릭합니다

*회의 시작*을 클릭하면 서비스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회의 시작

3) 회의 시작

Zoom 클라이언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다운로드

2. 회의 설정 → 회의 주소(링크) 복사 후 카톡으로 보냄

→ 참여자는 링크 눌러서 입장(비번 입력)

PC 줌 회의 설정

내 회의 > 회의 예약

주제: 추도예배 **5) 제목 넣기**

설명(선택 사항): **6) 시점 지정**
(최소 1시간 전 지정하고 카톡으로 링크 공유)

시점: 2021/08/19 6:00 PM

기간: 2 시간 0 분

7) 무료 회원은 40분 시간 제한
(시간 넘어가면 아래 되풀이 회의의 재개설하고 다시 초대)

표준 시간대: (GMT+9:00) 서울 **8) 반드시 표준시간 서울로 설정**

☐ 되풀이 회의

회의 ID: ☒ 자동으로 생성 ☐ 개인 회의 ID 238 696 6821

보안: 암호 * 7223 **9) 비번 설정**
초대 링크 또는 암호가 있는 사용자는 회의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찍으면
영상으로 연결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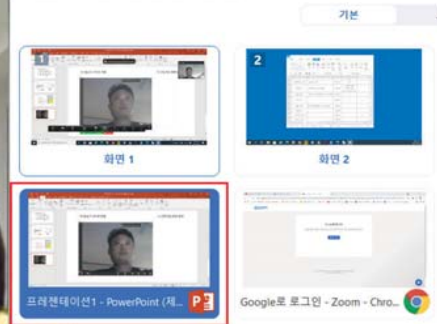
3. 회의 입장 후 마이크, 비디오 ON

- 예배자료 파워포인트로 미리 제작 → 인도자는 화면 공유
- 예배 참여자는 화면보고 예배 순서 따라감

10) 음소거, 비디오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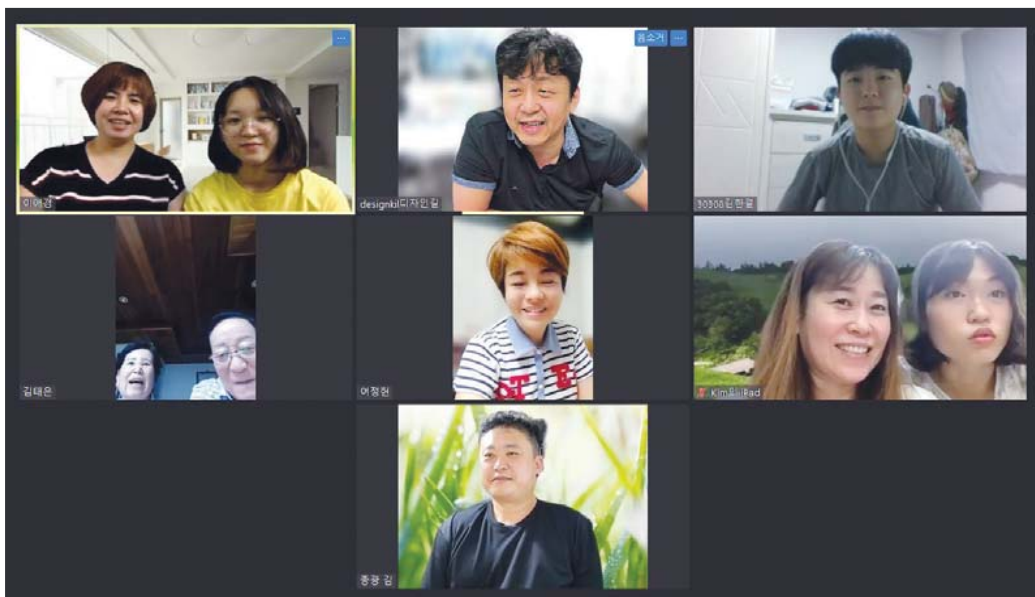


11) 인도자는 화면 공유



4. 줌 예배 시 40분 넘지 않도록 유의

- 40분 초과 시 회의를 다시 개설하고 링크 공유해서 재입장하거나 유료회원제 가입해야 시간 무제한으로 사용 가능함



발리 신학중·고등학교 기숙사 건축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의 불모지인 발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임마누엘 유치원, 초등학교, 신학중·고등학교를 설립하게 하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양성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몸둘 바를 모르고 사역을 하고 있는 허성순, 김순환 선교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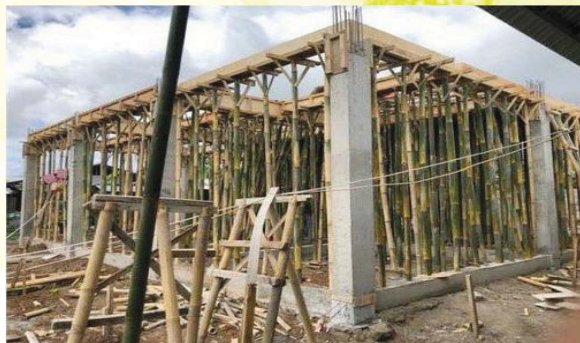
인도네시아는 종교인 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종교 중·고등학교가 존재합니다. 발리 신학중·고등학교(Sekolah Menengah Teologi Kriten Presbiteri Bali)는 그런 취지에서 설립된 기독교 학교입니다. 학생들의 대부분은 말씀을 배우고자 발리가 아닌 꾸방섬과 숨바섬에서 왔습니다. 생활공간이 없는 이들을 위해서 기숙사 설립을 시작하였는데, 현재 공사자금이 부족하여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있습니다. 9월 개학에 맞추어 학생들을 입실할 계획이었으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학생들이 타지에서 몸과 마음의 안식을 누리며,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숙사 건립을 위한 후원에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후원계좌 -

- 1) 미션펀드 - 카드후원 가능(일시후원클릭)
- 2) 개인계좌 - 신한은행 110-280-689150 허성순
- 3) 인니 BCA 0401846068 soon hwan kim

정기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1구좌(5만원)으로 학생 1명의 숙식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열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잠 25:13)

살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2여년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부족한 저의 가정을 위해 신뢰함으로 기도로 응원해 주시고 동역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동역자 한분 한분의 삶속에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정에스겔, 임 울 선교사

- 2021년 상반기 사역보고 및 은혜나눔

1. Church(교회) / 사이공선교교회, 한국교회 방문

- ① 베트남 현지 사이공선교교회도 사회적 격리로 모든 예배가 영상으로 드러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볼 수 없어 서로의 근황과 소식을 알 수 없어서 현지 사역자들과 성도님들이 함께 ZOOM (영상)으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특별히 베트남 코로나 상황으로 장기간 복귀하지 못한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 ② 한국교회 방문(파송교회 점촌시민교회, 대구신암교회, 부산부르신교회, 거제도열린문센터) 방문 하였습니다.
- ③ 점촌지역 우쿨렐라 사모모임에서 초대해 주셔서 교제하고 후원해 주셨습니다.
- ④ 코로나로 인해 한국에서 교회방문은 자제하고 있으며 영상예배와 가정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2. Mission(선교) / 베트남 소식

- ① 베트남은 8월 9일 현재 4천명대 전국 코로나 확산과 호치민은 1일 신규 환자가 1천 600명대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총리령16호가 두달 가까이 시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식료품, 긴급상황 이외는 외출 및 이동이 전면통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부터는 저녁 6시 야간통행도 금지되었고 병원과 병상이 부족하여 치료도 받기 어려우며 무증상 확진자가 많은 가운데 사망자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 ② 베트남 정부도 경제보다 방역이라는 정책으로 전환하여 경제활동과 기업 활동을 중단하고 방역에 치중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③ 이에 베트남 선교지와 지원이 필요한 곳에 방문이 어려워 현지인들과 소통하며 필요한 물품을 현지인 리더들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 ④ 지난 2020년 10월 베트남 중부지역에 태풍으로 인한 기록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가옥과 경작지가 모두 소실되어 긴급구호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한국교회들과 이 소식을 나누고 점촌시민교회에서 지원해 주셨습니다. 현지 70가정에게 쌀과 생필품을 지원하였고 향후에도 꾸준한 지원을 위해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현지인들이 직접 농사를 지어 상생할 수 있는 프로젝트(야자수지원)를 계획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3. Business(사업)

- ① 지난 해 10월 베트남에서 3년동안 사역했던 K-CAFE는 사역을 마무리하였습니다.
- ② 앞으로의 계획은 코로나-19의 상황이 좋아지는대로 사역지(베트남 호치민)에 복귀하여 현재 한동대에 유학중인 베트남학생 Han(가원/올해 논문 제출/내년 2월 졸업예정)와 베트남 현지에 장학생 Vi(소망)이와 언어학교(어학원카페)를 개원 및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③ 지금까지 저희가 해온 비즈니스선교는 저희(목사, 선교사) 스스로가 리더가 되어 현지인을 채용하여 양육 및 교육해가는 방법이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양육과 교육, 채용으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양육과 교육이 된 현지 학생들을 리더로 세우고 현지인들이 스스로 운영 및 경영해 나아가며 더 나아가 현지인이 현지인을 스스로 돕고 양육 및 교육하는 것을 저희가 서퍼트하는 방법으로 계획하고 도전해 보려 합니다.
- ④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과 필요들이 많겠지만 사역은 저희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고 나아가려 합니다.
- ⑤ 위의 사역은 한국 점촌시민교회에서 함께 협력하려 합니다.
- ⑥ 이에 지금의 코로나로 인해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다음의 발걸음을 위해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해 주세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기도로 이루어진 사역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 베트남 기도 제목

- ① 베트남의 심각한 코로나 상황이 조속히 끝날 수 있도록
(부족한 의료와 빈곤으로 치료조차 생각지 못하고 사망자도 속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② 베트남 영혼들의 안전과 건강. 무엇보다 복음의 땅이 될 수 있도록
- ③ 베트남 교회, 한인교회, 사역자, 성도님들의 안전과 영육간에 강건함이 있도록
- ④ 베트남에서 가르친 모든 학생들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건강할 수 있도록
- ⑤ 가원이 성경공부와 1:1양육교육 잘하여 가원이가 하나님을 깊이 진심으로 만날 수 있도록
가원이가 갑상선 항생증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부작용 반응이 있어 다음주 세부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검사결과 별 이상없이 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가원이가 남은 유학생들 잘 감당하고 잘 마칠 수 있도록(논문, 졸업)
- ⑥ 소망이의 건강과 대학진학, 영상교육지원 등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 8월 한국에서 특별한 시간을 보내며 정예스겔, 임 울 드림



QR코드를 찍으면
영상으로 연결됩니다

나빌레라,

당신을 크게 날아오를 사람

드라마 ‘나빌레라’는 동명의 웹툰에서 드라마, 뮤지컬로도 제작되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70세의 할아버지 덕출(박인환 분)이 23살 채록(송강 분)의 발레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 속 깊은 꿈이었던 발레에 도전하는 내용입니다. 70대 할아버지의 뻗뻗한 몸만큼이나 가족들의 반대와 발레하는 사람들의 시선 등 쉬운 과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게다가 발레 선생인 채록이도 축구부 코치였던 아버지



무영(조성하 분)이 체벌 문제에 연루되어 교도소에 가고, 그 사건으로 인생이 꼬인 축구부 친구 호범(김권 분)의 괴롭힘으로 이래저래 괴로운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발레에 대한 재능이 있지만 펼치지 못하고 슬럼프로 힘들어하는 채록과 아무도 발레하는 삶을 지지해 주지 않는 70대 할아버지가 인연을 맺고 스승과 제자이면서 동시에 발레리노와 매니저로 서로를 도와갑니다. 할아버지 덕출이 조금씩 몸을 풀어나가며 발레 동작을 하는 장면은 몽클한 감동입니다. 특히 호범이 채록이를 자주 괴롭힐 때, 할아버지가 친구들에게 가서 “채록이 괴롭히지마, 채록이는 크게 날아오를 사람”이라며 믿어주는 장면은 가슴 찡합니다.

주인공 채록이 덕출 할아버지의 따뜻한 보살핌과 지지를 받아 콩쿨 본선까지 통과하게 되지만, “개 못 날아요. 내가 꺾어 놓을 거거든”



하고 이를 갈던 친구 호범이 계단에서 밀어뜨려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늦은 나이에 발레를 시작했고 겨우 다시 마음을 잡고 해보려 하다 또 부상 때문에 못하게 된 상황. 채록은 잃어버린 기회는 뒤로 하고 다시 연습을 해 나갑니다. 3년 후 채록은 정말 큰 무대에서 날아오르게 되죠.

덕출 할아버지는 채록이를 괴롭히던 호범이에 게도 괜히 자극해서 미안하다며, “너도 날아오를 수 있어.” 라고 격려해 줍니다. “저는 벌써 스물 셋 이라구요!” 화내는 호범에게 덕출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나는 칠십이야.” 하고 대답합니다. 웃음이 나는 대목입니다. 결국 호범은 방황을 끝내고 몸풀기부터 차근차근 다시 축구를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게 뭐였는지 아예 기억조차 나지 않는 상황이 오는 것이 두렵다고 말하는 덕출 할아버지에게서 배웁니다. 삶에 대한 열정이 있는 한, 칠십 나이도 꿈을 향해 한 걸음 딛기에 전혀 늦지 않았다고. 🍀

Photo News

전도왕 시상 (2.28)



제1차 경건생활 시상식 (3.7)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4.3)



입교 · 세례식 (부활절, 4.4)



제188회 대구동노회 (본교회 4.6)



아름다운학교 개강식 (4.8)



대구동노회 장로봉사단 발대식 (4.27)



유아세례식 (5.2)



케냐 김성령 선교사 (6.18)



노영숙 권사 백세생신 (8.13)



신암동산 자연장지 조성공사 (8.22)



총구역연합예배 - 전도간증집회 (이옥란 원장 9.3)



근속모범교사 시상 (아동부연합회 9.5)



2021년 10월~12월 행사 소개

교회 행사안내

10월 1일(금)	월삭기도회
2일(토)	교회 대청소1
3일(주일)	세례교육2
9일(토)	교회 대청소2
10일(주일)	교회창립기념주일 / 세례교육3
12일(화)	대구동노회
13일(수)~16일(토)	가을특별새벽기도회 준비를 위한 담임목사 기도주간
15일(금)	구역연합기도회
16일(토)	대구동노회남선교회연합회 선교대회(강사:박남수 선교사)
17일(주일)	세례·입교 당회문답
18일(월)~23일(토)	세례·입교식
26일(화)~27일(수)	가을특별새벽기도회
	하반기 교역자 세미나

11월 6일(토)	항존직 워크숍
12일(금)~13일(토)	정책당회
21일(주일)	추수감사절, 송페스티벌
28일(주일)	새가족환영회

12월 5일(주일)	신임서리집사 교육 시작
25일(토)	성탄절, 유아세례식, 성탄절 칸타타
26일(주일)	예결산 공동의회

대구신암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첫 출석 성도

6월



박성길 성도



신현일 성도

7월



서민정 성도

환영합니다

3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행복한 가정



안녕하세요? 필리핀 세부에서 20여년 살다가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에 오게 된 우성덕, 이신옥 가정입니다.

한국에 와서 교회를 어디로 정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시부모님께서 대구신암교회 금요성령집회때마다 참석을 하셔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고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님이 통로가 되어 대구신암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한 지붕 아래 함께 살지는 않지만 항상 기도의 동역자로, 양쪽 부모님의 기도로 한국에 와서 잘 적응하고 하루하루 주님의 인도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 셋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첫아이는 6개월 동안 기도 끝에 응답으로 낳은 아이라 예은이라 지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귀한 선물을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둘째 아이를 임신할 시기에는 점점 나이가 많아지고 몸이 갑자기 아파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상태가 되어 실망하고 있을 때, 끊임없이 새벽기도를 쉬지 않고 주님께 문을 두드리서 몸이 완전히 치료받고 건강해져서 둘째 아이를 선물로 받아 하은이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이후 마흔이 넘은 저는 육신적으로는 아이를 더는 가질 수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아들을 주셨으면 하고 간절히 원하고 또 기도를 쉬지 않고 새벽문을 두드렸습니다. 놀랍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응답으로 임신하여 아이가 태어났지만 병원에 40일 동안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나이가 많아 아이가 뱃속에서 병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은 살가망이 없다고까지 말했으나 그래도 눈물을

감추고 매일 감사 찬양을 하며, 입으로 예수님이 살려주실 것을 믿는다고 시인하며 이미 다 나왔다고 선포하였습니다. 마침내 간절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고 입원한지 40일째 되던 날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아이의 이름은 주님을 찬양하라고 주찬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주찬이의 누워있는 모습이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인 듯, 우리 아이가 예수님의 고통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분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 가까이 느끼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보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찬이에게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으니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집에 갈 준비를 하자” 라며 매일 이야기 해줬습니다. 퇴원을 하고 나서 주치의 선생님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찬이는 어머니의 기도로 나온 것입니다.” 그의 음성이 제게 너무 큰 위로를 주었으며 주찬이를 낳게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렸습니다.

고난 속에서 저희 가족은 더욱 주님께 가까이가는 시간이 되었고 저희 가족은 필리핀의 풍족했던 생활보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간이 더욱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역시 고난이 기쁨으로 이루어질 날을 믿고 주님의 계획에 함께 하길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저희 가족은 대구신암교회에 와서 3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너무 행복한 가정으로 이끌어 주셔서 참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회학교

- 영 아 부 - 주일 오전 11시 / 나사렛실
- 유 치 부 - 주일 오전 11시 / 소예배실
- 아 동 부 - 주일 오전 11시 / 엠마오실
- 중 등 부 - 주일 오전 11시 / 미스바실
- 고 등 부 - 주일 오전 9시 / 미스바실
- 어 와 나 - 주일 오후 2시 / 엠마오실
- 사 랑 부 - 주일 오전 11시 / 베데스다실
-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 20분 / 새가족부실

DAEGU
SHIN AM

PRESBYTERIAN CHURCH



장년부

- 주일낮예배 1부 - 주일 오전 7시 30분 / 대예배실
- 주일낮예배 2부 - 주일 오전 9시 / 대예배실
- 주일낮예배 3부 - 주일 오전 11시 / 대예배실
- 주일낮예배 4부(청년마하나임) - 주일 오후 12시 50분 / 대예배실
- 주일오후예배 - 주일 오후 2시 30분 / 대예배실
- 수요일예배 1부 -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 대예배실
- 수요일예배 2부 - 수요일 오후 7시 30분 / 중예배실
- 금요성령집회 - 금요일 오후 7시 40분 / 대예배실
- 새벽기도회 - 매일 오전 5시 30분 / 중예배실

신암평생교육원

- 대구아름다운학교 - 화, 목요일 오전 10시~12시, 오후 7시~오후 9시
성인 대상 / 국어(주, 야), 오카리나, 영어, 컴퓨터
- 신 암 실 버 대 학 - 금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
만 65세 이상의 남녀 대상(종교와 학력 무관) / 건강, 교양상식, 신앙, 취미오락
- 행복한유니게학교 - 토요일 오전 10시 30분~12시 10분
생후 18개월~48개월 어린이 및 보호자 대상
예배, 특별활동(동화구연, 미술치료, 뮤지컬 관람, 유아스포츠, 야외학습 등), 부모교육

우리의 목적은 성경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며, 순종하는 것이다.

Our purpose is to know, worship and obey God according to the Scriptures.

발행 : 광송기 / 주간 : 김두리 / 편집장 : 김종광 / 편집위원 : 김정학 최진숙 허병기 김민주
41208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14길 17(신암동)
<http://www.shinam.or.kr> ☎ 053) 955-7755